

빈 것과 채워짐의 의미

The Meaning of 'Content' and 'Conten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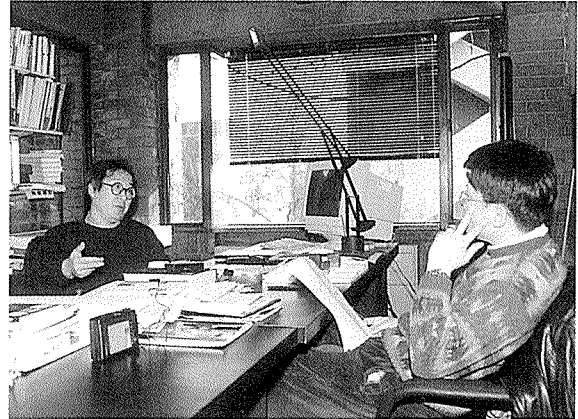
건축사 / 승효상(이로재건축)

대담자 / 정인하(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Jung In-Ha & Seung Hchloh-Sang

일시 / 99. 1. 13.(수) 15 : 30

장소 / 이로재건축



대담광경(왼쪽: 승효상, 오른쪽: 정인하)

이 글은 승효상소장이 영국북런던대학(건축실내디자인 학부)의 객원교수로 체류중인 관계로 잠시 귀국때 대담한 내용임.

정인하 _____ 지난번에 집을 둘러봤는데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경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생겨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미 승효상의 주거개념은 수졸당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집에 대한 자료를 스크랩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변화랄까, 새롭게 시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효상 _____ 이 집은 수졸당하고 주인도 다르지만 놓인 위치도 다릅니다. 수졸당이 도시주택을 생각하고 만들었다면, 이 집은 시골주택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주말주택이나 전원주택과 같은 낭만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닌, 즉 세컨드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집주인이 공직생활을 오래하다 은퇴를 하고 여유가 생겨서 기거하는 집이니까, 집도 그런 분위기가 나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관점이고, 또다른 하나는 수졸당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지각적인 퍼스펙티브가 있는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사람이 건축공간을 산책하기 위해, 한사람의 관찰자나 사는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움직임의 루트를 생각하며 설계한 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졸당은 하나의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여러 개의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집을 설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다시 얘기하면 투시도가 서양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만 우리나라 건축공간의 경우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부분에서 집을 소묘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가도 그 나름대로의 하나의 완성된 공간을 갖는 집이 옛날집의 속성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고려했습니다. 이 두가지 관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정인하 _____ 이 질문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 글을 읽는 독자를 위한 질문인데요, 집을 지을 때 건축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시 반영될 만한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효상 _____ 건축주가 은퇴한 공직자이고, 부인은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 거실이 따로 필요하게 아니라 작업실이 있는 60평정도의 집을 요구했습니다.

정인하 _____ 여기서 60평이라고 한 것은 법적 개념이죠? 이동수 부소장과 얘기했는데, 60평이 허가가 필요없고 다만 신고만으로 가능한 면적이라고 하던데요.

승효상 _____ 그 개념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외의 나머지는 건축주가 저에게 모두 일임했습니다. 요즘 건축주들은 설계를 맡기기에 앞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인하 _____ 일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축주와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저를 모르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 집주인은 상당한 문화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승효상 _____ 건축주 두분 다 전통 기행도 많이 하고, 안목도 높고, 가지고 있는 수집품도 비싸서라기 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취미도 격조가 높습니다. 굉장히 품격이 있는 분들이죠.

정인하 _____ 그래서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다. 주변에 지어진 전원주택들이 승소장님의 작품에 비하면 창고같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쌓일 것 같다고요.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 초기 컨셉에서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이 일관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승효상 _____ 두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지 뒤쪽에 있는 땅을 집 짓는 도중에 사, 초기의 대지 여건하고 조금 틀려졌습니다.

정인하 _____ 그게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승효상 _____ 뒤에도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으면서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이 집으로 인해 뒷집의 시선에 방해가 안되게끔 일층으로 했습니다. 그런 변화에 2층에 아들 방이 하나 더 있으면 한다고 도중에 건축주가 요구했습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초기 개념은 일층건물로 해서 땅에 완전히 밀착되게 짓는 것인데, 이층이 되어서 집이 솟아 났거든요. 애초에 세운 개념과 틀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공간의 재미는 더 많아진 것이 틀림없고, 그래서 이 두가지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건축주가 저에게 모두 일임한 상태라 이것으로 인해 집 전체의 모양이 흐트러지면 2층을 안 올릴려고 했지만, 그냥 요구를 받아드리면서 애초 집을 지표에 달라붙게 만든다는 생각은 바꾸었습니다.

정인하 _____ 대지의 조건이 좋아보입니다. 사이트를 보고 생각하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승효상 _____ 맨 처음 사이트를 봤을 때 이 집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리 사이트를 봐도 안떠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은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이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이

주위의 산세 등 지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축이 하나의 신념이 되는 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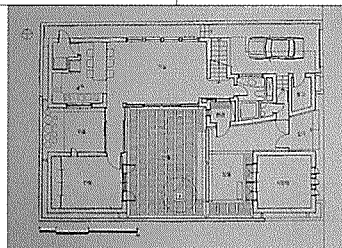
정인하 _____ 신념이라고 함은?

승효상 _____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고 땅안으로 꼭 꺼지는 제2의 대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그러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변이 다 트여지고 넓고 해서, 스스로 성격을 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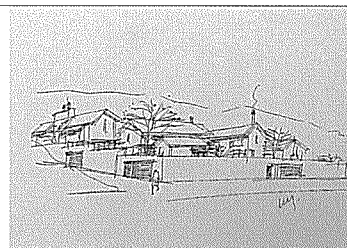
정인하 _____ 그 부분이 약간 불만이긴 해요. 공간에 대해 애길 하자면, 이 건물을 보자마자,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틀렸구나 생각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나 하면, 아무리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집들은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머리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한가지 떠올랐던 사실은, 너무 마당이란 개념이 객체처럼 대상으로만 취급된 느낌이에요. 옛 집 같으면 공간은 건축과 동일자처럼 포함되어서 하나의 전체의 개념으로 온전하게 이해되는데 여기서는 너무 계획되는 대상으로만 파악되는데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효상 _____ 그것은 마당이라기 보다는 방이 12개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5개의 내부 방과 7개의 외부 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것을 마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골집에서의 마당의 개념과 도시집에서 마당개념은 다릅니다. 도시집은 그것이 유효하고 필요한데, 시골의 마당이란 도시주택처럼 마당이 그렇게 유효하진 않습니다. 주위 자연이 있으니깐. 모두 방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정인하 _____ 그런 맥락으로 들으니 이해는 가는데, 마당이란 존재자체가 옛날 한옥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표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표상이 갈라지고 더 이상 일치할 수 없는 간극이 보이니까 제가 처음 옛날로 돌아갈



수정당 1층 평면도



성북동 K씨 주택 스케치

수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시대에서 마당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의 표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아까 말씀하신 방의 개념하고는 다른가요?

승효상 _____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서 독락당을 가보면 시골집의 전형적인 마당이 발견됩니다.

정인하 _____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마당이란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2의 대지하고, 외부공간을 마치 방처럼 생각하고 설계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어떤 한국 전통적인 공간의 개념을 계속해서 승화시킨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생각하신 문화적 개념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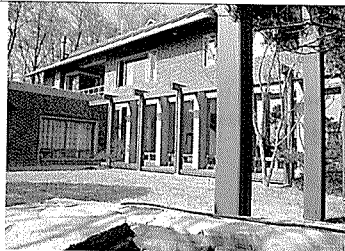
승효상 _____ 전통의 개념은 아닙니다. 항상 전통적인 개념을 승화시킨다고 생각해서 저의 건축에 그런 소명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작은 땅을 가진 도시주택이 아닌 매우 넓은 땅이 있으므로 우선 땅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건축화가 되어야 하는지부터 출발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의 대지를 보면 뒤에 산이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평평한 데도 있고 산도 있고 밑에 내려가면 밭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굳이 전통적인 개념의 마당을 안 만들어도 자연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땅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공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가 문제였습니다. 이 점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면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할 때, 15m x 30m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문방이 하나 있잖아요. 약간 생활과 떨어져 있는 그런 정신적인 공간을 나누고, 거기에 여러 개의, 요즘 서양에서 말하는 개념하곤 조금 틀리지만, 인테리어 랜드스케이프처럼 여러 개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를 꾸린 다음

에 거기에 하나의 루트로 연결시킨 것이 이 건물입니다. 어떤 것은 내부공간이 되고 어떤 것은 외부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공간이 외부공간과 서로 만나서 작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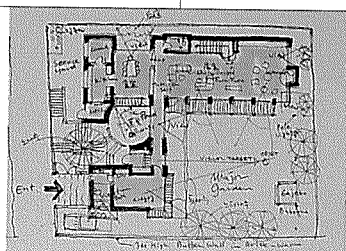
정인하 _____ 제가 좀 약간 의아스러웠던 것은 테라스(마루마당)입니다. 그게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 틀의 경계이죠. 그 경계 밑에 있는 잔디나 정원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도록 한 것은 설계의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설계 개념상으로는 명료한 경계를 결정하는데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인간의 활동을 고려하면 이 경계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단의 높이 차도 70~80 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둔다는 게 너무 개념적인 접근이 아니었습니까?

승효상 _____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계 바깥의 나머지 땅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 나머지 땅은(누가 집을 짓는다, 땅을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에 의해서 눈도 오고 빗갈도 변하고해서 틀 내부와는 다른 세계입니다. 독락당은 은퇴한 사람들이 사는 은자의 집입니다. 이 집을 설계하면서 독락당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은 아니고,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다 보니 독락당이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미지에서 독락당의 마당들도 다른 마당하고 굉장히 다른 형식의 마당입니다. 내부화된 마당 같은게 많습니다. 가다보면 계정은 자연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소위 주고 받는 관계, 이런 관계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독락당에 관한 글도 읽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하 _____ 한국건축에서 자연과 건축이 만나는 것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상호 관입되는 모습도 보인데, 여기서는 너무 명료하게 분리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어떤 전통적인 감성이나 느낌에 의한 공간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상당히 개념에 의한 추상화된 공간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자연환경이 펼쳐져 있고, 건물이 그 펼쳐진 자연 속으로 삽입되는데, 과연 승소장님의 방법이 바람직한 태도인가에 대해



성북동 K씨 주택



성북동 K씨 주택 평면 스케치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승효상 _____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념적인 집이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가 자연스럽게 융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의 성격상 주인의 성격이나 이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생각을 볼 때 그런 한계를 갖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인하 _____ 내부공간을 구성하는게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움직임에 의해 체험되는 시지각적인 장면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연결하는 연결공간이 너무 단순하게 일자로 쭉 가니까 모미나 재미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효상 _____ 주택은 관람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고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선에서 다른 동선으로 가는 스페이스의 흐름을 주려는 식으로 이 집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가서 머물면서 생활을 합니다. 공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고려한 집이라 루트를 따라가면서 공간을 즐기려는 생각은 일체 없었습니다.

정인하 _____ 그런데 2층까지 올라가는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교묘하게 이야기하자면 건축적 산책로의 이미지를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집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승효상 _____ 아무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각 통로에서 루트에서 쳐다보는 경치도 공간마다 다르고 그랬는데, 그 흐름에서 보는 공간이 중요한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부 공간 안에 집주인이 있을 때 안공간과 바깥공간, 또 집주인이 바깥공간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바깥공간과 안공간 그리고 이 둘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변화가 중요했지, 그 움직임의 루트에 의한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인하 _____ 평소에 설계하실 때도 그랬습니까?

승효상 _____ 이번에만 그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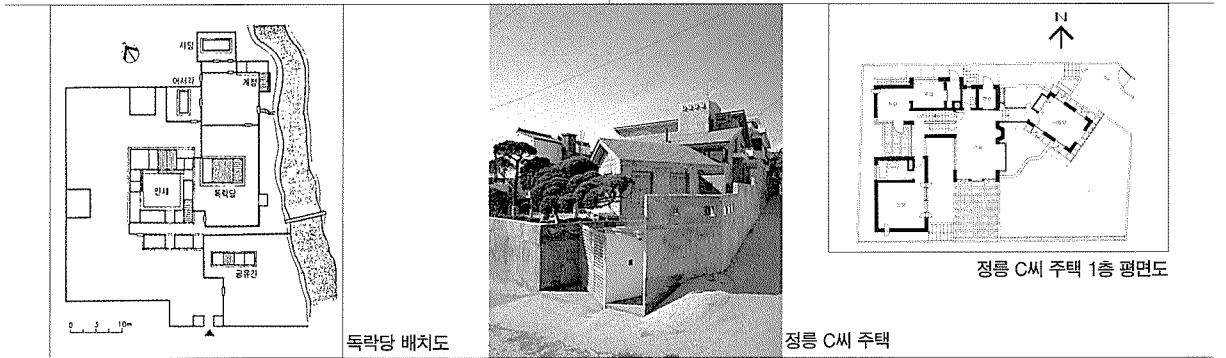
정인하 _____ 다른 어느 작품에는 움직임에 대한 고려가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승효상 _____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인하 _____ <빈자의 미학>이라는 책을 보면 건축이 도시에 대해 닫혀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주택작품을 보면 의외로 닫혀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계도 그렇고 제 생각엔 폐쇄적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여기서 열려짐하고 주택에서의 경계 또는 닫혀진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승효상 _____ 그렇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졸당도 보면 닫혀진 집이라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담이 없으니까 담으로 주변환경을 막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오히려 골목길 가운데로 끌어들어서 작지만 강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우선 주변환경, 자연환경의 크기라는게 있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어떠한 공간의 범위내에서 손을 대어야 할지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과제였고, 자연과의 연결은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면 모양이나 이론상으로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은 건축이고 나머지는 내가 관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 자연이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계에 관한 문제였지 다른 어떤 자연친화적으로 어떻게 하자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빈자의 미학에서 이야기하는 오픈개념과 이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하 _____ 승소장님의 작품과 김수근선생과의 작품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김수근선생에 대해 연구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공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 차



이가 나는 점은 안과 밖의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경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느냐, 밖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고, 안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고, 또 이것이 안되면 안과 밖의 투명한 관계, 중간적, 매개적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 건축공간을 다루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적어도 김수근 선생의 주택작품을 볼 때는 안쪽으로 내부공간을 많이 수용하는 편이고 그것이 수용하고 나서 안과 밖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소통하도록 하는 디자인 전략을 갖는데 비해, 승소장님의 경우는 안쪽에 수용하는 기능들이 최소한의 의미만 가지고(이런 작품에서 특히 잘 나타나지만) 나머지는 밖의 공간에서 처리해서 소통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효상 _____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계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새로운 체취도 담기고 변화되어서 그 사람 방식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히 주택의 경우에선 프레임만을 제시합니다. 그렇게도 바뀌어 봐야 쉽사리 바꾸지 못할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을테니까요. 우선 그런 생각 때문에 먼저 보이드(Void)한 부분부터 계획을 해놓고 나머지를 계획합니다. 보이드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손대선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 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에서도 많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인하 _____ 그것은 일종의 네가티비즘하고 상통되는 것입니까? 음(陰)중심주의랄까?

승효상 _____ 내가 아는 한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인하 _____ 건축에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그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행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해 규정이 되고 영향을 받고, 그 성격이 거기서부터 규정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건축에서 존재하는 것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행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깐, 당연히 공간이나 비어있는 것에 대해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승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으로 생각하니깐 이 건물의 본질 자체가 잘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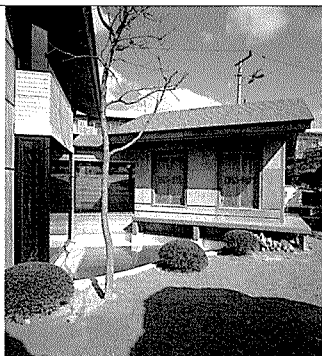
2층 아들방이 프로그램상에 늘어난 부분이라 했는데 접근이나 위치가 모호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를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까?

승효상 _____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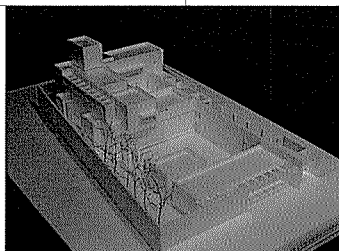
정인하 _____ 앞으로도 주인이 고치지 않고 작업실을 지나 외부로 난 통로를 통해 다닐까요?

승효상 _____ 주인은 불편한 것도 좋아합니다. 불편한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방도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동선이 긴 것도 이해합니다. 단 한가지 보안때문에 바로 실내에서 방으로 들어가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충분히 불편을 즐기신 다음 도저히 못견딜 때 그때 고치자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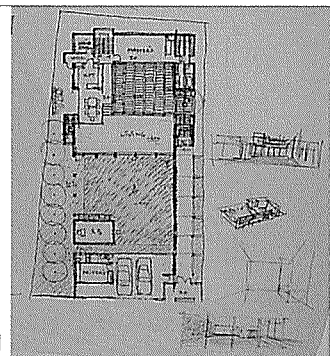
정인하 _____ 사랑방, 문방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김수근선생과 비교되는데, 김수근 선생은 문방이란 공간 자체가 즉흥적이고 이벤트가 일어나는, 에너지가 충만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문방의 공간이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합니다. 이 점이 김수근선생과 승소장님의 차이라고 생각되



정릉 C씨 주택



분당 단독주택 모형



분당 단독주택 평면 스케치

는데, 상당히 은둔적이고 적막한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는 공간사옥에서 나온 문방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승효상 _____ 문방은 사유를 위한 공간입니다. 교류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유를 즐길 수도 있겠지만 마당자체도 흙으로만 있었으면 싶었고, 문방 앞에 벽으로 둘러싸인 부분도 지금은 개구부가 있는데 원래 설계에서는 다 막았습니다. 벽만 보게끔 했는데, 건축주가 조심스럽게 요구해서 낮추게 되었습니다.

정인하 _____ 그게 제가 지적할 부분이었는데, 거기가 개구부가 생겨서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왕래가 가능한 턱높이가 되다 보니깐요. 문방이란 것의 성격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승효상 _____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니까 역지로 출입을 하자면 하겠지만 그 집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올 것입니다. 문도 단다고 하니까. 그건 출입을 위한 문이 아니고 개구부를 뚫어서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경을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워낙 완전히 막혀져 있는 벽을 쳐다보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공간이었으니까. 문방이라고는 하지만 옛날 집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 자신도 손님을 즐겨하는 분이고, 또 그 방은 손님들이 오면 게스트 룸으로 사용하게 될텐데... 손님들이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잘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정인하 _____ 건축가가 이 공간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느낌을 줍니다.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 언급이 될 것이고 이게 건축사적으로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고의로 골탕을 먹인다고 할까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건 명료하게 떨어집니다. 공간이라든지 매스가 붙어있고 길의 체계라든가 중간에 연결하는 복도라든지 논리적으로 명료한데, 그 부분은 건물하고 마당하고 뒤쪽에 있는 나

무가 있는 마당이 애매모호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승효상 _____ 그것은 아니고, 15m x 30m의 프레임을 두고 한 것으로 이것은 생활하는 하위 개념의 공간 또는 상위의 공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체계는 가지지만 다른 어떤 취향이 있고, 이 생활을 즐겼지만은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결코 골탕을 먹이거나 건축사적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인하 _____ 모형이나 사진이 없어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지만 뒷문하고 통하는 문과 문방앞에 있는 마당하고 뒤쪽의 문이 애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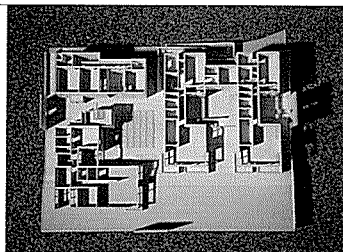
승효상 _____ 우선 문방 앞의 창호지 코너에 있는 문은 완전히 접어서 들어가지고 바깥의 흙 마당하고 같은 공간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했고, 뒤에 있는 또 하나의 스페이스는 완전히 이쪽과 성격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정인하 _____ 그것은 바라보는 공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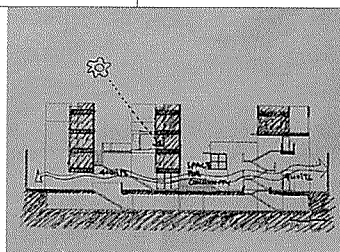
승효상 _____ 그것은 문방이라는 내부공간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실, 전실의 개념이 담긴 공간입니다.

정인하 _____ 전실치곤 너무 무겁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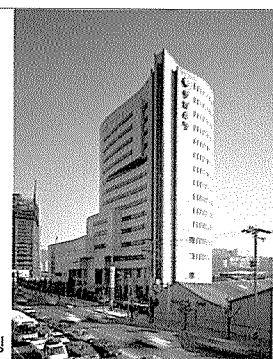
승효상 _____ 일단 문방으로 들어오면 그 공간을 실내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면 또 하나의 전실이 있고, 다시 그 위에 매개 역할을 하고 다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시 문방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문방 공간이 독립적이면서도 열면은 그 앞의 흙마당과 함께 다른 공간을 만들고, 이런 구분이 공간의 변이적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쳐다볼 수 없게 안 만들었습니다. 다만 방안에서 뒤쪽으로 창을 하나 뚫은 것은 또하나의 스페이스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분당 연립주택



분당 연립주택 스케치



놀원 빌딩

정인하 _____ 아까 다양한 퍼스펙티브의 시점을 말하셨는데, 그게 창의 위치와 관계가 있습니까?

승효상 _____ 창의 위치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크기나 높이, 위치 등을 결정하는데... 그 공간 내부에서 볼 때, 바깥에서 볼 때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에서는 좋은데 바깥에서 볼 때가 좋지않고, 또 공간을 연결시키려면 다르고해서 수시로 변경시킨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인하 _____ 작업실같은 경우 전면에 조망을 위한 큰 창이 있고, 위에는 채광용 창이 있습니다. 옆에는 외부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발 높이 정도되는 창이 있습니다. 그 창도 높이를 결정하는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승효상 _____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옆에 물이 있는 마당이 있는데, 옆을 쳐다보기 위해 앉으면 또 다른 공간이 생깁니다. 지나갈 때는 밑에서 빛이 들어오고, 풍경으로 느껴지지만 만약에 큰창을 만들었으면 앉으나 서나 같은 공간인데 낮춤으로써 다른 느낌을 갖는 공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인하 _____ 그럼 좌식생활을 기본으로 했습니까?

승효상 _____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위치에 패치카가 계획되었습니다. 패치카를 만들어 놓고, 패치카 볼 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게 만들었는데, 입구에서 들어올 때 굴뚝이 시선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없애 버렸습니다.

정인하 _____ 건물밖으로 솟아나온 철골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북동 주택에서도 나온 것인데, 그것은 물론 철재는 아니지만 격자형의 프레임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승효상 _____ 그게 이집에선 중요한데, 15m x 30m 의 프레임을 확실히 결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외부 경관에 틀을 부여하는 것이면서도 내부로 끌어들이는 경관하고 외부에 있는 경관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확연히 나타내주는 아주 유효한 도구입니다. 그럼으로써 마루가 달려있는 또 하나의 스페이스의 경계가 설정됩니다.

정인하 _____ 그런 모티브가 없어도 마당, 테라스 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계가 설정될 것 같은데요?

승효상 _____ 그것은 평면적인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공간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정인하 _____ 제 생각에 문방 앞에 흙으로 된 마당이 음영때문에 썩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앉아서 내부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볼 때는 좋은데,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고 그 곳에 음영이 쳐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사랑방과 같은 따듯함이 없어서 어찌보면 건축가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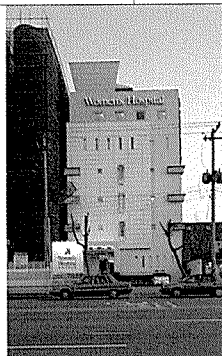
승효상 _____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완성은 안되었지만 흙이 거칠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게 작업실의 뒷 벽인데 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흰 벽으로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습니다.

정인하 _____ 벽이 갖는 의미는 알겠는데, 마당에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음영이나 그림자에 의해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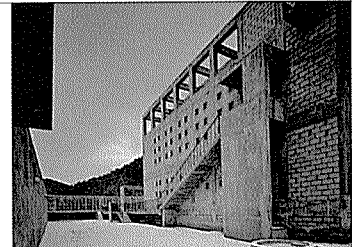
승효상 _____ 그림자는 일단 수시로 바뀌고, 그 마당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하면 그런 변화를 담기 위해 원초적 상태로 그냥 있었으면 합니다. 모든 현상이 수시로 변하니까 장식을 한다든가 혹은 고치는 것은 안했으면 합니다.



이문 291



영등재일병원



당진돌마루공소

정인하 _____ 건물재료에 대해서 말하자면, 옛날 수졸당에서 쓰인 재료와 동일합니다. 드라이 비트를 사용하셨는데 수졸당이 도시속에 있는 주택이라면 이는 자연속에 있는 것인데, 재료가 동일해서 그런지 도시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깔끔하게 시공된 측면이 더욱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건 의도된 것이었습니까?

승효상 _____ 우선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경제적 사정때문에 비싼 재료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졸당도 집장사 집처럼 싼가격으로 지어달라고 해서 아주 싼 재료를 썼습니다. 그보다도 흰집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백색의 집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이름도 수백당으로 정했는데 그 의미라는게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게 바탕이고 그 위에 굉장히 많은 세월이나 삶이 기록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백색이 영원불변토록 유지됐으면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럽혀져도 되고 더구나 햇빛, 비바람에 의해서도 수시로 변할 것입니다.

정인하 _____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집에서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것은 조경인 것 같습니다. 조경은, 설정하신 경계 내의 것과 자연을 연결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연못도 설치되어 있고 수공간도 있는데,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승효상 _____ 조경이란 개념보다 인테리어 랜드스케이프란 개념입니다. 설정한 영역 속에 여러 가지의 형태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건축적 조경입니다. 결국은 인테리어 룬도 조경이라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경계를 나누고 뒤에서 물이 담겨져서 앞으로 흘러 보내서 물이 머물러 가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각 인테리어 룬들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재질에 의해서 다른 형태의 액티비티가 일어나도록 기본적인 성격은 나누어놨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인하 _____ 한국에서 수공간을 이용한 조경개념은 대부분 실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용자 측면에서요?

승효상 _____ 이것이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것이 물을 가지고 조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는 물을 잠시 담았다가 다시 흘러 보내는 것이니까 담기 싫으면 안담으면 됩니다. 겨울에는 물 못 담잖습니까? 그냥 자갈이 깔려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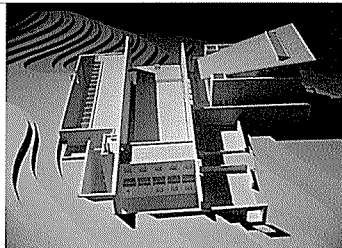
정인하 _____ 김중업 선생이 인도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공간에는 물을 사용해서 디자인적 요소로 이용하려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제대로 유지되는 공간이 없습니다. 한국정서에 물이라는 것이, 연못처럼 내버려둬도 계속 존재하고 유지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인위적인 흐름을 만든다는 자체는 관리가 필요하고 계절이 바뀌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효상 _____ 물 양이 많을 때나 그렇습니다. 물 양이 10cm, 20cm 정도이니까 아주 손쉬운 일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의 공간이라 생각하지 않고, 마감재료로 보고 있으니까요. 물과 더불어 어떤 생활을 즐긴다는 것보다는 마감재료적인 개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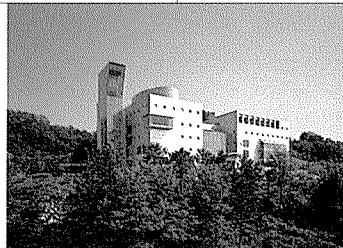
정인하 _____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승효상 _____ 수졸당, 수백당을 가지고 책을 낼 예정입니다.

정인하 _____ 그 책이 나오면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겠군요. 감사합니다.



경주법당



순천향대학 도서관



대학로 문화 공간